

대 유네스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2차 회의 회의록

2007. 6. 2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

1. 일시 : 2007년 6월 27일 (수요일) 17:00 - 19:00

2. 장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

3. 참가자 (가나다 순)

강대근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김천홍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현안추진단 팀장

박상식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前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

서유미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

유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철 경향신문사 외교분야 논설위원

이승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유희승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 사무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직원 다수

4. 진행순서

17:00 - 17:05 인사말 (이승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업본부장)

17:05 - 17:10 참가자 소개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17:10 - 17:40 주제발표 **'왜 유네스코 외교인가?'**

(발표 : 유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7:40 - 18:10 유네스코 주요 현황 소개

(발표 :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 국제협력담당)

18:10 - 18:55 주제 토론 (사회 :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18:55 - 19:00 맺음말

19:20 - 21:00 만찬 (로얄호텔 2층 일식당 '기꾸')

5. 주요 내용

가. 인사말 (이승환 정책사업본부장)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국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이 보다 절실했다. 특히, 교육, 과학, 문화 등 소프트 외교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계, 시민단체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이미 유네스코와 협력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계획임. 이처럼 한국의 유네스코 사업 참여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함. 이번 포럼이 이러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유네스코 전략 수립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함.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발전되어 제도적 변화로까지 연계되길 희망함. 국제협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사업과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 체제, 평가 체제 그리고 연구 체제 등의 제도적 틀이 정비되어야 함. 특히, 유네스코 연구를 위해 중국 정부가 인민대학에 유네스코 연구 센터를 설치한 것은 주목할 만함.

나. 주제발표 (유석진 교수)

“왜 유네스코 외교인가”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 참조

한 나라의 국력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파워(Hard Power)와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내어 이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확보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먼저 소프트 파워는 “나의 생각(목표)에 상대방이 매력을 느끼거나 혹은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본질적으로 소프트파워는 남이 보고 평가해주는 것임. 타자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행동을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일차적으로 남의 마음을 정확히 읽는 작업이 요구됨. 자기중심적 소프트 파워론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한국에서의 소프트 파워 논의는 지나치게 한류와 IT에 매몰되어 있음. 즉, 소프트만 있고 파워는 없는 형국임. 또한 한류와 IT에 대한 지나친 민족주의적 혹은 국가주의적 접근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프트 파워의 기반을 침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남. 이러한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적 접근은 사라져야 함.

향후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은 누가 세계적 문제에 대해 문화적 감수성을 보여 왔으며 도덕적 우위를 축적해왔는지에 상당부분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은 도덕과 문화의 힘을 제고, 선진문화강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임.

한편, 소프트 파워 생산 주체 문제와 관련, 한류 등의 현상이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한류를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거나 직접 생산을 담당할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한류 등의 문화적 흐름과 가치는 이를 담당하는 문화인과 시민사회가 생산의 담당자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유통 혹은 진출을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이처럼 문화적 현상을 시민사회와 문화인, 기업 등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소극적인 소프트파워 외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정부의 소프트파워 외교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함. 특히 지금은 한국 소프트 파워 외교 전체에 대한 재검토와 이에 따른 우선순위의 설정과 이에 상응하는 자원 배분이 필요한 시기임.

한편, 소프트 파워가 형성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야인 교육, 과학, 문화를 아우르는 전 세계적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는 소프트 파워 외교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소프트 파워 외교의 최우선 순위는 유네스코 외교에 두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의 재배치 등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유네스코 주요 현황 소개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 국제협력담당)

“유네스코와 한국”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 참조

유네스코는 총회, 집행이사회, 사무국 등 3대 기구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회원국이 유네스코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국가위원회 및 상주대표부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유네스코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직원들로 구성되며 2006년 6월기준, 사무국의 정규직원은 모두 1,693명이고 이중 70%인 1,180명이 파리 본부에서, 나머지 30%인 53명이 전 세계 52개 지역사무소 및 11개 유네스코 산하 기구에서 각각 근무 중임.

국가위원회는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위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정부기구로서의 국가위원회’, ‘자치적 국가위원회’, ‘반자치적 국가위원회’ 등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짐. 국가위원회는 주로 정보제공, 연락 및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들어 국내는 물론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통한 유네스코 사업 수행 등 그 기능이 확대됨.

2007년 6월 현재 180개 회원국이 유네스코 상주대표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유네스코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대표부의 독립공관화가 절실함.

유네스코 Category I 기구는 유네스코의 11개 산하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들 기관들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일부임. 이에 비해 유네스코 Category II 기구는 유네스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유네스코와 회원국 간의 협정을 통해 설립되는 기구로서 유네스코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밖에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305개의 NGO 및 27개의 재단과 업무상의 관계 혹은 공식관계 등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한편 2008-2013년 기간 중 유네스코 사업 및 운영에 있어 바이블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중기전략(안)은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통한 세계 평화, 빈곤 감소,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 간 대화 증진에 기여”를 유네스코의 사명으로 밝히고 있음. 같은 기간 중 최우선 사업목적으로는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 달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지식 및 정책의 활용”, “새로운 윤리적 도전들에 대한 문제 제기”, “문화 다양성 및 문화 간 대화 촉진”, “정보.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포용적 지식사회 건설”이 선정됨.

한국은 현재 유네스코 정규예산 총액의 2.183%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191개 회원국 중 11위에 해당함. 한국은 정규예산 부담금 외에도 다양한 신탁기금사업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에 기여하고 있으며 규모도 매년 증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유네스코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탁자들의 요구에 따라 개별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앞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네스코 우선사업을 고려하여 운영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충분한 사전협의 조정이 이뤄져야함.

라. 주제토론

- 박상식 교수 : 먼저 유네스코 대표부의 독립공관화 필요성과 관련, 과거 유네스코 대표부를 주프랑스대사관에 통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함. 한 나라의 한 도시에 3개의 공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 파리에 이미 주불대사 및 OECD 대표부 대사가

파견되어있는 상황에서 유네스코 대표부의 독립공관화는 불필요한 인력의 집중이라 판단하여 통합한 바 있음. 과거 일본의 경우에는, 주불 대사관 차석대사가 유네스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대사관 직원 일부가 유네스코 업무를 수행하였음. 사람을 늘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관 설립이 추진되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프트파워 증대라는 전략적 목표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하며 투입인력도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되어야 함.

두 번째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대개 철학과 전공의 대학교수가 맡고 있음,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의 경우 외교관들이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향후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세 번째로, 집행이사회에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 이후의 활동에 대한 계획마련과 준비가 필요함.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증진 논의를 국익 증진의 차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선(글로벌 소프트파워)을 위한 순수한 노력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

끝으로, 한국인의 유네스코 진출이 저조한 이유는 언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됨. 능력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김영길 총장 : 한동대는 최근 유네스코 UNITWIN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개발도상국 인재를 초청 국내에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과거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도움을 기초로 사회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음. 이제는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갚아야할 시기임. 특히, 다양한 지원 사업 중 유네스코의 교육사업을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도국 및 최빈국에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 같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승철 논설위원 : 소프트파워 외교는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유네스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성숙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함. 한국인의 유엔기구 진출과 관련, 한국인의 역량은 많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됨. 이런 역량 있는 젊은이들이 유엔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박상식 교수 : 최근 유엔기구 진출 관련 정보는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음. 문제는 정작 능력 있는 자원들이 유엔기구 진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임.
- 정현백 교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스스로를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중간적 형태의 반자치적 국가위원회로 구분한다면, 이러한 자기정체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고민해야 함. 한편, 우리나라가 유네스코를 통해 제3세계를 돕는 일들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의 국익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다만, 유네스코를 통해 여타 유엔기구들의 진보적인 움직임 및 인본주의적인 노력들이 국내 시민사회에 원활히 소개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유희승 사무관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의 개도국 전수 사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의 교육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음. 이외에도 개도국 교육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나라의 ODA사업 중 교육훈련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추후, 국제기구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논의도 서서히 이뤄져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지원사업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됨.
- 강대근 원장 :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Category II 기관으로 2000년에 설립됨.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의 활동 대상은 아태지역 46개 회원국으로서 교사훈련 워크숍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들 회원국의 국제이해교육(인권교육, 평화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요소를 포함)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국인의 유네스코 진출 확대와 관련,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언어능력은 물론, 유네스코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젊은 인재 양성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식민, 이념적 갈등, 분단, 군사독재, 경제적 위기 등을 모두 경험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한 나라로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 우리의 특별한 경험과 발전사례는 제3세

계 국가들에게 좋은 Role model이 될 수 있음. 우리는 이들 국가에 우리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Story로 만드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마. 질의 및 답변

- 임현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 : 유석진 교수의 발표와 관련, 국가 차원의 소프트파워 증진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유네스코 외교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큰 그림을 한국위원회가 그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는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제안하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이주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원 : 최근 들어 젊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유엔 관련 기구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으나 JPO제도 외의 다른 진출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진출 사례 및 정보들이 잘 축적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아울러 유엔 기구 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 유엔기구 직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문제점 등에 관한 현실적인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석진 교수 : 누가 그림을 그리는가? 주체는 정치집단일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하며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할 것임. 우리 젊은이들의 유엔기구 진출과 관련, 젊은이들의 능력과 정보획득통로의 미스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유네스코를 통한 소프트파워 증진에 있어 아이러니 한 점은, 국력 증진을 고려하는 순간 소프트파워는 사라지는 것이고, 국내적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익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이라는 것임.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받은 만큼 국제사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됨. 지원사업에 있어 꼬리표를 붙여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국내적 컨텍스트에서 어쩔 수 없이 국익을 언급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소프트파워의 증진을 위해서는 국익이라는 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됨.